

애착 유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 탐색

이 희 영†

(† 부경대학교)

The Search for Parenting Behaviors relating to Attachment Style

Hee-Yeong LEE †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6, 2004 / Accepted June 10, 2004)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arenting factors relating to attachment style. Subjects were 418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completed 1) a brief demographic data questionnaires, 2)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and 3) Relationship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discriminant analysis for the total sample and by gender. For men, affection, neglect, monitoring, intrusiveness, reasoning, inconsistency and physical abuse of both father and mother are important parenting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discriminating secure attachment style from insecure attachment style. For women, neglect, affection, reasoning, inconsistency, monitoring and physical abuse of father and affection, reasoning, neglect, inconsistency and monitoring of mother are important parenting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discriminating secure attachment style from insecure attachment sty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or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parenting behavior, attachment style, discriminant analysis

I. 서론

최근에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맥락적 요인을 강조한다. 다양한 맥락적 요인이 인간 발달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족이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는 인간 발달과 관련하여 가족의 구조적 변인에 초점을 두었고 연구 결과는 인간 발달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적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교육이나 상담에 별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족의 구조적 변인은 교육자나 상담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 이유로 교육 및 상담 분야의 학자들은 가족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상호작용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간 발달에 있어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수

† Corresponding author: 051-620-6851, hylee@pknu.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행되고 있다. 하나는 인간 발달과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변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착이다.

애착이란 어떤 특정인과 접촉하고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Bowlby, 1982)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을 언급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부모-자녀간의 애착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는 자녀가 부모와 맺는 애착 관계의 질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개인차는 인간 발달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Goldberg, 1991; Rice, 1990). 애착 관계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발달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애착 관계의 질에 있어서의 개인차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애착의 개인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변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이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Bowlby(1982, 1988)에 의하면, 자녀가 미성숙(영아기, 아동기, 청년기) 기간 동안에 양육자와 한 경험이 애착 유형의 주 결정 요인이라고 한다. 이 진술은 영아기와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많은 국내외 연구로부터 지지를 받았다(예, 이진숙, 2001; 조은영, 1996;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Goldsmith & Alansky, 1987; Isabella, 1993).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 연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영유아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애착 관계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애착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애착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이들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자녀와 어머니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자녀의 애착 대상은 어머니에게 한정되지 않으며, Lamb(1987)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어머니 못지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방식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할지라도, 자녀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행동이나 방식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거나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런 식의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물론 유용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연구로는 어떤 양육행동이 애착유형에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

위에서 제기한 선행 연구의 제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자녀의 애착 유형을 구분해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애착 유형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어떤 요인이 애착 유형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애착 유형을 어느 정도 변별해 주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P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

는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발달과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442명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은 24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418명(남학생 208명, 여학생 210명)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의 연령은 18에서 27세의 범위에 있었고, 학년은 1학년 241명(57.9%), 2학년 89명(21.3%), 3학년 44명(10.5%), 4학년 43명(10.3%)의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1) 양육행동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수는 4개에서 7개로 총 80 문항이다. 이 척도의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점 방식은 각 요인별로 응답자가 반응한 점수를 모두 합하면 된다. 각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에 해당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척도에 대한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67-.86의 범위에 있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아버지의 경우, 감독(.81), 합리적 설명(.82), 비밀관성(.64), 과잉기대(.83), 과잉간섭(.81), 학대(.81), 방치(.73), 애정(.84)이었고, 어머니의 경우는 감독(.81), 합리적 설명(.79), 비밀관성(.61), 과잉기대(.84), 과잉간섭(.80), 학대(.75), 방치(.71), 애정(.83)이었다.

2) 애착 유형

대학생들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 유형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내적 작동 모델

에 기초하여 개발한 애착관계검사(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를 연구자가 직접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Q는 성인 애착을 안정형(secure), 무시형(dismissing), 몰두형(preoccupied), 두려움형(fearful)의 4가지 유형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관련되고, 무시형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관련되며, 몰두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관련되고, 두려움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관련된다. RQ는 4가지 애착 유형 각각을 기술하는 4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검자는 먼저 이 중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진술문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술문 각각에 대해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한다. 이들 4가지 애착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유형이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개발자의 제언을 따라 2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판별분석을 차례로 수행하였다. 판별분석은 남녀 학생별로 부모의 양육행동 8개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을 각각 이원적으로 유형화하여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남녀×부모에 따라 4개의 판별함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애착 유형 분포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하위변인들간의 상호상관계수

애착 유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 탐색

<표 1>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부의 양육 행동							모의 양육 행동								
		감독	합리	비일관	기대	간섭	학대	방치	애정	감독	합리	비일관	기대	간섭	학대	방치	애정
남	M	9.31	12.92	8.29	13.71	15.09	8.71	8.77	16.15	10.87	13.35	8.02	13.56	16.21	8.23	7.84	17.80
	SD	2.65	2.96	2.39	3.86	4.15	3.07	2.71	3.45	2.45	2.64	2.13	3.65	4.02	2.56	2.35	3.12
여	M	10.03	13.29	8.24	12.60	14.88	8.03	8.41	17.09	12.07	13.88	8.35	12.90	15.80	7.86	7.46	18.36
	SD	2.65	2.98	2.01	4.02	4.29	2.44	2.62	3.64	2.41	2.55	2.04	3.98	4.19	2.01	2.18	3.16
전체	M	9.67	13.10	8.26	13.15	14.98	8.37	8.59	16.62	11.47	13.61	8.19	13.22	16.00	8.04	7.65	18.08
	SD	2.67	2.97	2.20	3.97	4.22	2.79	2.66	3.57	2.50	2.60	2.09	3.83	4.10	2.31	2.27	3.15

주. 합리 - 합리적 설명, 비일관 - 비일관성, 기대 - 과잉 기대, 간섭 - 과잉 간섭

<표 2>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상호상관

		부의 양육행동							모의 양육행동							
		감독	합리	비일관	기대	간섭	학대	방치	감독	합리	비일관	기대	간섭	학대	방치	
남	합리	.54**							.44**							
	비일관	-.25**	-.41**						-.25**	-.37**						
	기대	.02	-.17*	.32**					.00	-.15*	.32**					
	간섭	.00	-.23**	.49**	.46**				-.06	-.30**	.45**	.50**				
	학대	-.12	-.27**	.51**	.35**	.44**			-.13	-.15*	.42**	.27**	.28**			
	방치	-.39**	-.48**	.40**	.23**	.29**	.42**		-.41**	-.44**	.36**	.13	.29**	.54**		
	애정	.56**	.66**	-.37**	-.09	-.26**	-.31**	-.60**	.46**	.57**	-.33**	.01	-.29**	-.24**	-.57**	
여	합리	.47**							.19**							
	비일관	-.12	-.28**						-.12	-.46**						
	기대	.14*	-.04	.34**					.06	-.18**	.33**					
	간섭	.19**	-.04	.34**	.49**				.19**	-.23**	.51**	.53**				
	학대	-.18**	-.34**	.38**	.17*	.27**			-.08	-.38**	.48**	.26**	.36**			
	방치	-.59**	-.51**	.37**	.16*	.17*	.35**		-.53**	-.37**	.40**	.08	.13*	.34**		
	애정	.47**	.62**	-.35**	-.04	-.06	-.33**	-.60**	.29**	.52**	-.42**	-.18**	-.25**	-.25**	-.56**	

주. 합리 - 합리적 설명, 비일관 - 비일관성, 기대 - 과잉 기대, 간섭 - 과잉 간섭 *p<.05 **p<.01

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먼저 <표 1>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하여 보다 감독적(부 M=9.67, 모 M=11.47), 간섭적(부 M=14.98, 모 M=16.00), 애정적(부 M=16.62, 모 M=18.09)이며, 덜 방치적인(부 M=8.59, 모 M=7.65)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표 2>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점수의 상호상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행동 하위요인들 간에는 비교적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녀 학생 모두에서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과 애정적 양육행동(r=.52 ~ .66), 애정적 양육행동과 방

치적 양육행동(r=-.56 ~ -.60)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은 변인들간의 다공선성을 가정할 수 있는 기준(r=.70, Tabachnick & Fidell, 1996) 보다는 낮았다.

<표 3>은 학생들이 부모와 맺은 애착유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안한 4가지 애착 유형 중 두려움형과 몰입형은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에는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분석에서는 두려움과 몰입형 및 무시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불안정 애착형으로 묶어 안정 애착형 대 불안정 애착형으로 이원화

<표 3> 부모와의 애착유형 분포

	부와의 애착유형							모와의 애착유형						
	4유형 분류				2유형 분류		전체	4유형 분류				2유형 분류		전체
	안정형	두려움형	몰입형	무시형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안정형	두려움형	몰입형	무시형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남	N 71	20	11	36	71	67	138	121	5	6	34	121	45	166
	% (51.4)	(14.5)	(8.0)	(26.1)	(51.4)	(48.6)	(100)	(72.9)	(3.0)	(3.6)	(20.5)	(72.9)	(27.1)	(100)
여	N 88	17	7	38	88	62	150	139	10	0	26	139	36	175
	% (58.7)	(11.3)	(4.7)	(25.3)	(58.7)	(41.3)	(100)	(79.4)	(5.7)	(0.0)	(14.9)	(79.4)	(20.6)	(100)
전체	N 159	37	18	74	159	129	288	260	15	6	60	260	81	341
	% (55.2)	(12.8)	(6.3)	(25.7)	(55.2)	(44.8)	(100)	(76.2)	(4.4)	(1.8)	(17.6)	(76.2)	(23.8)	(100)

하였다.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으로 이원화할 경우, 부에 대한 애착 유형은 안정 애착형이 55.2%, 불안정 애착형이 44.8%로 나타나 안정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간에 비율상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모에 대한 애착 유형은 안정 애착형(76.2%)이 불안정 애착형(23.8%)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 분포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모에 대한 안정애착형의 비율이 여학생의 경

우 79.4%, 남학생의 경우 72.9%로 나타나 남녀간에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 대학생들은 부와 모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을 달리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행동 기준에 의한 애착유형 구분의 판별분석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 집단을 변별해

<표 4>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애착유형 판별함수 산출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함수	고유값	분산의%	정준상관	Wilks Λ	χ^2	df	p
남	부 양육행동-부 애착유형	1	.369	100.0	.519	.730	37.71	8	.000
	모 양육행동-모 애착유형	1	.350	100.0	.509	.741	44.37	8	.000
여	부 양육행동-부 애착유형	1	.571	100.0	.603	.637	61.40	8	.000
	모 양육행동-모 애착유형	1	.318	100.0	.491	.759	43.63	8	.000

<표 5> 양육행동 하위요인의 판별함수에 대한 구조계수

양육행동	남				여			
	부	계수	모	계수	부	계수	모	계수
애정		.845	방치	.859	방치	.734	애정	.898
방치		-.630	애정	-.780	애정	-.731	합리	.640
감독		.618	감독	-.562	합리	-.647	방치	-.589
간섭		-.561	비일관	.500	비일관	.591	비일관	-.562
합리		.489	합리	-.417	감독	-.529	감독	.378
비일관		-.477	학대	.413	학대	.427	기대	-.290
학대		-.371	간섭	.375	기대	.246	간섭	-.283
기대		-.156	기대	.151	간섭	.110	학대	-.277

주. 합리 - 합리적 설명, 비일관 - 비일관성, 기대 - 과잉 기대, 간섭 - 과잉 간섭

주는 양육행동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8개의 양육행동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애착유형을 준거 변인으로 하는 판별 분석을 실시한 <표 4>에서부터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남녀에 따라 각각 1개씩의 판별함수가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정준상관의 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Wilks $\Lambda = .637 \sim .759$, $p < .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애착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타당하며 유도된 판별함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5>는 부모×남녀에 따라 산출된 판별함수에 대하여 각각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구조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각 하위요인들은 계수의 크기(기여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돈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남녀에 따라 8개의 양육행동 중 5~7개의 요인이 $\pm .30$ 이상의 계수 크기를 보임으로써 산출된 판별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애정 요인과 방치 요인의 경우, 부모×남녀에 따른 4가지 판별식 모두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여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주

<표 7> 애착유형 집단 판별을 위한 양육행동 하위변인의 분류함수 계수

	남				여			
	부		모		부		모	
	안정 애착집단	불안정 애착집단	안정 애착집단	불안정 애착집단	안정 애착집단	불안정 애착집단	안정 애착집단	불안정 애착집단
감독	1.11	.96	1.97	1.84	2.97	2.78	3.61	3.53
합리	1.51	1.58	2.94	3.07	1.72	1.60	3.17	3.02
비일관	1.57	1.59	2.82	2.94	2.15	2.42	2.37	2.51
기대	.61	.53	-.23	-.19	-.18	-.07	.28	.35
간섭	.23	.39	1.34	1.36	-.64	-.68	-.24	-.21
학대	-.02	-.01	-1.29	-1.29	1.60	1.67	1.57	1.49
방치	3.46	3.50	5.60	5.97	4.87	5.02	5.84	5.87
애정	2.86	2.59	3.30	3.08	2.50	2.36	3.49	3.14
(상수)	-67.22	-64.36	-97.82	-100.22	-78.74	-77.70	-115.13	-109.58

주. 합리 - 합리적 설명, 비일관 - 비일관성, 기대 - 과잉 기대, 간섭 - 과잉 간섭

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잉기대나 과잉간섭 요인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낮은 구조계수를 보였다. 남녀간 혹은 부모에 따라 양육행동 요인 각각의 기여도 순서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수의 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표 6>은 안정 애착형 집단과 불안정 애착형 집단을 구분하는 판별점수를 나타낸 것이다(평균 0.0 표준편차 1.00기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남녀 모두에서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 집단은 판별점수의 평균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산출된 판별 함수가 집단구분에 유효한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표 6> 판별함수의 집단중심점

	남		여	
	부	모	부	모
안정 애착집단	.593	-.354	-.642	.287
불안정 애착집단	-.613	.975	.877	-1.09

<표 7>은 부모의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별로 안정 애착형 집단과 불안정 애착형 집단을 구분하는

분류함수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집단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보다 감독적(부-안정형 1.11 > 불안정형 .96, 모-안정형 1.97 > 불안정형 1.84)이고, 애정적(부-안정형 2.86 > 불안정형 2.59, 모-안정형 3.30 > 불안정형 3.08)인 경향이 있으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집단은 보다 비밀관적(부-안정형 1.57 < 불안정형 1.59, 모-안정형 2.82 < 불안정형 2.94)이고, 방치적(부-안정형 3.46 < 불안정형 3.50, 모-안정형 5.60 < 불안정형 5.97)인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8>은 양육 행동 하위변인들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 판별함수에 근거하여, 남녀 학생의 애착 유형을 예언할 경우의 적중률을 보여준다. 남녀×부모에 따라 적중률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모의 양육행동 하위변인으로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집단을 예언할 경우 적중률이 84.8%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남녀×부모에 따른 4가지 경우 중 남학생 대상의 부의 양육행동에 기초한 애착유형의 적중률(74.60%)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어떠한 경우이든 기본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저 적중률인 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8> 애착유형 판별 적중률 분포

	남		여	
	부	모	부	모
N	208	208	210	210
투입N	188	192	194	195
적중률%	74.60	79.9	75.4	84.8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애착 유형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는지 둘째, 유의미하게 판별해 주는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어떤 요

인이 유의미한 변별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애착 유형을 어느 정도 변별해 주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아래에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관계 형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연구는 많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영유기 아동이나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애착의 질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애착 이론의 기본 가정은 사실로 받아드려져야 할 것 같다. 둘째, 전체 8개의 양육행동 중 5~7개의 요인이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 집단의 판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와 부모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 중 과잉기대를 제외한 모든 양육행동 즉 애정, 방치, 감독,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과 학대가 안정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유의하게 판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부의 양육행동 중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모의 양육행동 중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는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판별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양육행동이 안정 애착 형성과 불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 또한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에 어떤 양육행동이 관련이 있고 어떤 양육행동이 관련이 없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의 연구는 연구 대상이 본 연구와 다르며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 또한 달라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셋째, 부모 양육행동이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은 남녀와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저 적중률 50%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애착 유형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의 경우, 부의 양육행동으로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은 74.6%이었고, 모의 양육행동으로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은 79.9%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부의 양육행동으로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은 75.4%이었고, 모의 양육행동으로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은 84.8%이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부와 모에 따라 적중률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부와 모에 따라 적중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여학생의 경우 애착유형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애착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판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는 상관분석이나 변량분석을 통해 어떤 양육행동이 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고 어떤 양육행동이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거나 특정 양육행동이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안정 애착형과 불안정 애착형을 판별해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애착유형별로 차이나 관련성을 보여줄 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이나 상담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부모 양육행동을 밝힘으로써 자녀 양육을 담당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청소년 발달 및 적응 문제와 관련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상담자는 심리적 문제를 다룰 때 부모의 양육태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불충분한 사례수로 인하여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안한 4가지 애착 유형 중 두려움형과 몰입형 및 무시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불안정 애착형으로 묶어 안정 애착형 대 불안정 애착형으로 이원화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의 세부 유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 애착형을 판별해주는 구체적인 양육행동은 두려움형, 몰입형 및 무시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례수를 충분히 하여 불안정 애착의 세부 유형별로 부모 양육행동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양육이나 교육 또는 상담 실제에서 관련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진숙,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6), pp.41~49, 2001.
- 조은영, 어머니의 아동 양육 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 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pp.213~226, 1996.
- 이근대·차타순,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의 태도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0권 2호, pp.129~138, 1998.
- 차타순,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4권 1호, pp.27~42, 2002.

- 이희영 · 안삼태 · 최태진,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5권 2호, pp.193~205, 2003.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pp.226~244, 1991.
-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1982.
- Bowlby, J.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1988.
- de Wolff, J., & van IJzendoorn, M. H.,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pp.571~591, 1997.
- Goldberg, S.,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 pp.393~400, 1991.
- Goldsmith, H. H., & Alansky, J. A., Maternal and infant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pp.805-816, 1987.
- Isabella, R. A.,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 pp.605~621, 1993.
- Lamb, M. E., Introduction: The emergent father. I M. E. Lamb(Ed.), *The father's role: A cross-cultural perspective*(pp.3~2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7.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pp.1049~1065, 1991.
- Rice, K. G.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pp.511~538, 1990.
- Tabachnick, B. G., & Fidell, L. 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2nd ed.). New York: HarperCollins, 1996.